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15.(월) 11:00 < 4.16.(화) 조간 > 배포 2024. 4. 15.(월)

4월 수출상황 긴급점검, 중동 리스크 최소화

-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공격 영향 점검결과··· 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 4월에도 수출플러스 전망···7개월 연속 플러스 가능
- 제4차 수출품목담당관 및 제5차 수출비상 대책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공격 사태를 포함한 4월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경성 1차관 주재로 4월 15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수출품목담당관 및 제5차 수출 비상대책반(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참석)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수출은 '24.1분기에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4월에도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세와 미국·중국·EU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6% 증가하였다.

강경성 1차관은 주요 품목들의 수출 현황을 논의한 결과, "4월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과 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월말까지 이어지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차관은 현지시간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무력공격을 감행함에 따른 우리 수출입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강 차관은 "△대중동 수출('23년 기준 수출의 3%)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을 통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면밀한 상황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번 사태가 홍해사태('23.11월)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물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등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043)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홍경태	(044-203-40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